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HBO 오리지널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2 ‘제시’역 한국계 배우 영 마지노 인터뷰 공개!

2025. 5. 7.

- 전 세계 ‘라오어’ 팬들을 흥분시킨 충격적인 전개!
- 지금 가장 핫한 한국계 미국 배우 영 마지노 인터뷰 전문 공개, 캐스팅 비하인드 까지!
- 영 마지노 “이들이 만들어낸 세계의 규모와 정교함을 생각하면 감탄이 나올 정도”

HBO 오리지널 시리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2가 매 회 충격적인 전개를 거듭하며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조 엘(페드로 파스칼)’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엘리(벨라 램지)’가 ‘애비(케이틀린 디버)’를 향한 복수를 다짐한 가운데, 감염자들의 습격으로 많은 이들을 잃고 지옥으로 변해버린 잭슨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처럼 뜨거운 관심 속 쿠팡플레이는 오늘 7일 저녁 8시 4화 공개를 앞두고 ‘엘리’의 조력자이자 잭슨의 든든한 기둥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제시’ 역의 배우 영 마지노의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2025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HBO® and all related channels and service marks are the property of Home Box Office, Inc.

‘제시’ 역 영 마지노 인터뷰

Q. 시즌 2에서 제시를 연기하게 된 계기 중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닐 드릭만 작가가 이미 게임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캐릭터, 제시를 만들어놓았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대본을 읽으면서 TV 시리즈에 맞춘 설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쇼러너 크레이그 메이진이 어떤 톤과 방향을 원했는지도 글 속에서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제시를 ‘와이오밍 선장’이라고 부르는 대사를 보고는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딱 감이 왔죠.

Q. 쇼에 합류하기 전에 게임과의 인연이 있었나요?

사실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1이 나왔을 때 저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

라운 게임의 컷신 모음 영상을 영화처럼 보고 빠져들었죠. 게임 중간중간에 나오는 시네마틱 영상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게 밤새 보다가, 훗날 시즌 2에 출연 제안을 받고 나서야 ‘어? 2편도 있었어?’ 하며 그때 가서 직접 게임을 해봤어요.

Q. 드라마 <성난 사람들>에 출연한 모습을 보고 연락한 걸까요?

아마 <성난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근데 정말 고마웠던 건 그들이 저를 불러서 한 시간 동안 앉아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였어요. 원래는 오디션을 보려는 줄 알았는데, 미팅이 끝나자마자 소러너께서 ‘걱정 마, 넌 괜찮아’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와, 진짜?’ 하며 나왔고, 며칠 뒤 바로 캐스팅 연락을 받았어요. 한편으론 안도됐고, 또 한편으론 조금 무섭기도 했죠. 누군가 이미 저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기획안에도 제 이름이 있었던 거니까요 —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2025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HBO® and all related channels and service marks are the property of Home Box Office, Inc.

Q. 제시가 공동체 내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제시는 일에 몰두하는 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 역시 인생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부모님 댁 뒷마당 숲에서 나무를 패면서 평온과 위안을 찾았는데, 제시도 비슷한 심리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아웃사이더예요. 잭슨 출신이 아니죠. 이 공동체에서 안식을 찾긴 했지만, 시즌 2 1화만 봐도 그가 여전히 약간 외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엘리에게 느끼는 감정도 그런 외로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녀 역시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감각이요.

그래서 그는 혼자서 순찰을 돌고 일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약간 방랑자 같고 자연을 사랑하지만 사회에 잘 섞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기여하고 싶어하죠. 제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다는 건 어떤 캐릭터든 살아 숨 쉬게 만드는 흥미로운 설정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사랑에 대한 문제들이 언급되긴 하죠.



©2025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HBO® and all related channels and service marks are the property of Home Box Office, Inc.

Q. 사랑, 특히 디나와의 관계에 있어 제시의 감정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단 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커요. 특히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제시는 깨닫게 돼요. 사람 사이의 사랑을 넘어서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걸요. 누군가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기보단, 공동체 전체를 위해 일하는 것에 더 의미가 있다는 걸요.

그는 잭슨 마을 덕분에 살아남았고, 그 빛을 갖고 싶어 하죠. 저와 디나는 대본 속에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도 있어요. 디나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 이런 점들이 제시의 '뿌리 내림'에 대한 욕망과 충돌하거나 혹은 균형을 맞추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Q. 디나가 제시에게서는 얻지 못하고 엘리에게서 얻는 건 무엇인가요?

흥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는 제시에게는 없는 에너지를 가져다줘요. 디나와 엘리가 처음으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죠. 엘리는

긴장하고 있고, 제시는 방 한쪽 구석에서 그걸 바라보며 괴로워하죠. 그 장면은 디나가 왜 제시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Q. 이 작품이, 게임을 했던 안 했든,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스토리텔링의 완성도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장르물—예를 들면 공포나 스릴러 같은 작품들—을 만들 때는 그 장르 자체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닐 드릭만과 그의 팀이 만들어낸 훌륭한 IP(지적 재산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레이그 메이진처럼 <행오버> 같은 코미디부터 <체르노빌> 같은 심각한 드라마까지 다뤄본 뛰어난 이야기꾼이 함께 작업했죠. 그는 스토리텔링의 본질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몬스터와 공동체가 공존하는 매우 현실적인 세계관과 만나니까 더 깊이 있고 섬세해지죠. 거기에 셰익스피어 비극과 복수극이 사랑 이야기와 엮여 있어요. 이들이 만들어낸 세계의 규모와 정교함을 생각하면,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HBO 오리지널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2의 4화는 5월 7일 수요일 저녁 8시에 공개되며, 새로운 에피소드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시청할 수 있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Warner Bros. Discovery) 소개

워너 브러더스 디스커버리는 세계적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텔레비전, 영화, 스트리밍,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콘텐츠와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현재 22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 50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 관객들에게 영감을 주고 정보를 전달하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디스커버리 채널, 맥스(Max), 디스커버리+, CNN, DC, TNT 스포츠, 유로스포츠, HBO, 푸드 네트워크, OWN, 인베스티게이션 디스커버리, TLC, 마그놀리아 네트워크, TNT, TBS, 트루TV, 트래블 채널, 모터트렌드, 애니멀 플래닛, 사이언스 채널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너 브라더스 모션 픽처 그룹, 워너 브라더스 텔레비전 그룹, 워너 브라더스 픽처스 애니메이션, 워너 브라더스 게임즈, 뉴 라인 시네마, 카툰 네트워크, 어덜트 스윘 및 터너 클래식 무비와 같은 대표적인 콘텐츠 제작 및 배급 브랜드도 포함됩니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www.wbd.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